올 정읍사문화제, 예년과 다르다

가을 단풍시즌에 맞춰 10월 말부터 열렸으나 올해는 20일부터 개최

거리퍼레이드 행진구간 변경 본 행사와 다른 연계행사 제외

정읍사문화제가 올해 색다른 모습으로 찾아온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정읍사문화제 거리 퍼레이드.

천년 여를 훌쩍 넘어 전해져 오는 애절한 노래와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매년 열리고 있는 정읍사문화제가 올해 예년과 다른 모습으로 개최된다.

시에 따르면 백제시대 한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매년 10월말 경 개최됐던 정읍사문화제가 올해는 10월 20일 오후 4시 거리퍼레이드를 시작으로 22일까지 3일간 정읍사 공원 및 정읍천변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정읍사문화제의 주제는 '천년의 기다림, 가요와 사랑으로 물들다'이다.

시와 정읍사문화제제전위원회는 "특히 정읍사문화제 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해 시민, 관광객, 청·장년층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의 전환을 위해 여러 가지 변화를 꾀했다"고 밝혔다.

먼저, 축제 일정 변경이 눈에 띈다. 그간에는 가을 단풍시즌과 맞춰 10월말부터 11월초 개최됐으나, 올해는 단풍시즌에 앞선 20일부터 3일 간 열린다. 그간 단풍시즌과 맞물려 축제를 가져왔으나 이에 따른 교통정체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 분산 유치를 통해 '단풍 한철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탈피한다는 취지다.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정읍구절초축제, 20일부터 22일까지는 정읍사문화제, 그리고 자연스럽게 단풍시즌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거리퍼레이드도 대폭 변화된다. 전야제 성격의 정읍거리퍼레이드를 정읍사문화제를 통합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긴밀한 토론과 축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내권(정읍역~구.명동의류~정주교) 행진구간을 벚꽃로(아양교~정동교~정읍사공원)로 변경해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거리퍼레이드 행렬을 다양한 퍼포먼스와 흥겨운 음악으로 축제의 주무대인 정읍사공원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본 행사와 다른 성격의 연계행사는 제외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읍천변과 정읍사공원을 연계한 야간 경관조명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4월 벚꽃축제 당시 호평을 받았던 정읍천변 경관조명은 벚꽃나무 뿐만 아니라 정읍천 LED 물길조명, 다리(초산교, 아양교, 정동교) LED조명 등으로 확대 설치한다. 이와 연계해 주 무대인 정읍사공원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경관조명과 연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생기 시장은 "올해 축제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시도가 많은 만큼 예년보다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축제가 될 것이다"며 "철저한 준비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운 오감만족의 체류형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축제 기념식은 오후 6시 정읍사 공원 특설무대에서 부도상 시상식과 함께 시작되어 경관조명 점등식,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그간 축제 개막식을 장식해왔던 '불꽃쇼'는 단순 불꽃놀이를 넘어 레이저와 서치라이트를 가미한 3차원 조명기법을 도입, 3일 간 가을밤 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야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LED소망풍선 날리기', '일루미네이션 포토존', '소원등 달기' 등도 마련된다.

21일에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걷기행사와 2017 정읍사 K-POP 청소년 축제, 제28회 정읍사 가요제 등 노래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어, 22일에는 제1회 정읍사 MAPLE STAR 오디션 페스티벌 등이 매일 밤 10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젊은 기타리스트 송용석

그가 들려주는 클래식 기타 선율

내일 저녁 소리문화전당에서 첫 독주회

클래식 기타리스트 송용석(21)이 25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첫 독주회를 연다.

기타리스트인 아버지 송기영 씨의 영향으로 음악에 재능을 보였던 그는 중학교 때부터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며 크고 작은 무대에서 활동해 왔다.

이날 공연은 독일 유학을 앞둔 그가 후원음악회 형식으로 선보이는 무대. 그는 '사랑의 로맨스' '숲속의 꿈' '불꽃' 등을 연주곡으로 들려주며, 기타연주자의 길을 선택한 이유와 앞으로의 각오 그리고 기타에 대한 생각 등을 엮어 낭독극 형태로 풀어낼 예정이다.

젊은 예술가의 도전에 지역 예술인들도 응원을 더한다. 소설가 김저운 씨는 '젊은 예술가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와서 낭독한다. 이형로(피아니스트)·조세훈(타악기연주자) 씨는 연주자로 참영하며, 아버지 송기영 씨는 아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이중주를 펼쳐 보인다.

송용석은 "어릴 때부터 많은 무대를 경험했지만, 클래식 기타리스트로서의 꿈은 쉽지 않았다. 어려운 현실에 좌절도 많았지만, 여러 상황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더 노력하며 당당한 길을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방문의 해 사진공모전 금상에 황보연씨 선정

전북도가 주최하고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전라북도지회가 주관하는 '2017전북방문의 해 전국사진공모전'에서 황보연 씨가 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황보연 씨의 작품은 '2017무주WTF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합동 시범공연'의 한 장면을 담아냈으며, 박진감 있는 순간 포착과 구성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은상에는 박균철 씨(덕유산 상고대)와 윤점순 씨(내장사 추경)가, 동상에는 김은선 씨(덕산계곡)·오봉회 씨(축하경주)·이승철 씨(전주한옥마을 축제)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694점이 출품됐으며, 이 중 금상1점과 은상2점·동상3점·가작4점을 비롯해 총80점이 입선작으로 뽑혔다.

/정해은 기자

싱어송라이터 박강수, 내일 우진문화공간서 무대

싱어송라이터이자 포크가수 박강수가 25일 오후 7시30분 우진문화공간에서 공연을 갖는다.

지역 소극장 공연으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박강수는 이번 콘서트에서 통기타와 하모니카 선율에 과하지 않은 절제된 감성을 실어 지친 일상에 위로를 전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음반의 수록곡인 '바람이 분다' '가을은 참 예쁘다'로 공연의 활기를 더한다. 서정성 짙은 노랫말과 그의 맑은 음색은 마음의 정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1년 부족한 사랑으로 데뷔한 박강수는 현재 '동네 한 바퀴'와 '나비'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